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 대중과 외호 대중은 11월 4일 위례종교용지에서 선원 법당 봉불식과 현판제막식을 병행했다. 사진은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참여 스님들과 종단 주요 지도자 스님들이 상월선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正覺까지 죽어도 일어서지 않겠다”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봉불·현판 제막식

위례=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부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 9명 스님들의 결연한 서원이 울려 퍼졌다.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달을 벗 삼아 정진하겠다는 풍찬노숙 '위례천막결사'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 대중과 외호 대중은 11월 4일 위례종교용지에서 선원 법당 봉불식과 현판제막식을 병행했다.

자승 스님 “가장 낮은 곳에서 정진할”

천막결사 수행처인 '상월선원(霜月禪院)'은 눈과 비, 최소한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졌다. '서리와 달을 벗 삼아 정진하는 수행처'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월선원 현판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휘호를 내린 것으로 선원 대중들의 정진에 대한 지극한 격려가 담겼다.

선원 대중으로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옹주사)·호산(수곡사)·무연(해인사)·심우(고불암)·진각(봉은사)·도림(정수사)·인

산(송광사) 스님들이 참여한다.

이번 위례천막결사는 백담사 무문관 동안거를 마친 자승 스님이 지난 2월 “가장 낮은 곳에서도, 다 놓아버린 곳에서도,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도 틀림없이 공부가 있을 것이니, 승가 본연의 모습으로 차별없이 정진해보자”는 뜻을 만나는 대중들에게 제안하며 시작했다.

서울역, 광화문 광장부터 탐골공원까지 천막 안거 장소가 거론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무산됐다. 이후 종단 신도시 포교불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가 결사 수행정진 장소로 최종 논의·결정됐다.

청규 제정... 여기면 제적 불사

결사 참여 스님들은 내년 2월 8일까지 진행되는 안거에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깊은 서원을 갖고 참여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선원 대중들이 제정한 청규다. 청규는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공양은 하루 한끼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도 제출했다.

결사 참여 스님들은 이날 고불문을 통해 초발심으로 돌아가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고행

자승 스님 등 9명 결사 대중들

3개월 천막 기거하며 안거 정진

초발심 되새기며 옹맹정진 서원

“이곳이 한국의 부다가야 될 것”

삭발·목욕금지, 공양 1끼만 허용

“규약 어길 시 승적 박탈” 결연

종정 스님 직접 현판 휘호 격려

제가자 동참 가능한 공간도 마련

을 버리고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저희도 이제 위례신도시의 황량한 트랙으로 찾아왔다. 우리에겐 이곳이 부다가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행 스님 “천막결사, 큰 울림될 것”

이날 봉불·현판식에 참여한 대중들은 위례천막결사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정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못하다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 출가자의 본분사를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 왔다. 이런 점에서 천막결사는 우리 불교계와 사회에 던지는 큰 울림”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스님들의 발원에 사부

대중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축사를 통해 “상월선원 개원은 이와 사의 정신이 모여 강단 있는 결기를 모아내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며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신도들에게는 신심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무문관 별도 공간 마련

이번 위례천막결사에는 제가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상월선원은 선원 무문관 옆에 불자들이 대중 스님들을 외호하며 기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짧게는 2박3일에서 최대 6박7일까지 정진이 가능하다. 현재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다.

이기흥 회장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천막 정진하는 스님들을 응원하고 저 역시 공부하기 위해 신청했다. 스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계사와 봉은사 등은 외호 대중으로서 결사에 동참한다. 상월선원 도감 해일 스님(성남 봉곡사 주지)은 “사판승으로서 정진 대중을 외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외호 경험은 많지만 천막 안거 정진은 전례가 없다. 선원 안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무탈 회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고불총림 해제

제217회 정기회서 만장일치로... 역대 두 번째

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에서 해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총림 구성요건이 수년간 충족되지 않고, 1996년 前 종정 서용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으로 운영한다는 조건부 신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결과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7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추가로 접수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 안건은 종책모임 화엄회를 중심으로 24명의 종회의원들이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화엄회 간사 도심 스님이 했다.

도심 스님은 의안 발의 사유를 △백양사가 前종정 서용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을 운영하겠다고 조건부 신청한 점 △총림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된 점 등 2가지로 정리했다.

도심 스님은 “제120회 중앙종회(1996.3.30.)는 백양사가 총림으로서 부족하지만 서용 스님 생존 시에만 인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지정했다. 백양사는 총림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라며 “율학승가대학원과 염불원은 없는 실정이고, 경내 고불선원은 대중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쇄해 재가보살선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종단에서 시정요청을 했으나 시정과 내실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제안설명에 대다수의 종회의원들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제16대 중

양종회에 이어 제17대 중앙종회가 특위를 구성해 총림실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총림 구성요건 개선이 되지 않은 점에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총림을 지정했던 것과 같이 지정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정범 스님은 “학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할 문제다. 이 문제는 어느 총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중앙종회는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인지 거수로 찬반을 물었다. 출석의원 76명 중 67명이 찬성하면서 고불총림 백양사의 총림 지정 해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불총림 백양사는 조계종 현대사에서 두 번째로 총림서 해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첫 총림 해제 사례는 98년 종단사태 당시 정화개력회를 주도한 영축총림 통도사다. 중앙종회는 1999년 7월 26일 제141회 임시회서 영축총림의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했다. 다만 통도사는 종단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제되고, 이듬해 3월 다시 총림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백양사와 차이가 있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이번 총림 지정 해제와 관련해 “사중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중앙종회 관련 기사 A2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本紙, 불교언론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그린 부디즘’ 환경 기획 호평

대상엔 BTN 다큐 ‘사명대사’

本紙 신성민·노덕현·윤호섭 기자의 ‘그린부디즘 연작’ 기획 ‘必환경 시대&Green Buddhism’·‘키워드로 읽는 Green Buddhism’(이하 그린부디즘 연작)이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은 11월 6일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26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헌장서 열린다.

本紙가 진행한 ‘그린부디즘 연작’은 미세먼지, 라돈 사태 등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가 발발한 시점에서 불교 환경운동을 되짚고 ‘必환경(Green Survival)’이란 화두를 제시한

연속 기획이다.

또한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TN 다큐드라마 ‘사명대사’가 선정됐다. 이 밖에 방송부문 TV최우수상에는 KBS 스페셜 ‘세계유산 대흥사-인드라망의 숲에서’가, 우수상에는 KBS 1TV 다큐세상 부처님오신날 기획 ‘마음의꽃 연등’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에는 BBS특별기획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 신문부문 우수상에는 법보신문 ‘위법망구의 현장을 찾아서’, 뉴미디어부문 최우수상에는 BTN 기획보도 ‘포고, 부처님 법 꽃피우다’, 우수상에는 BBS불교방송 오디오 팜캐스트 ‘부다’가 선정됐다.

한편 불교언론인상에는 김형구 법보신문 대표이사가 선정됐으며, 특별상으로는 영화 나랏말싸미와 뮤지컬 ‘shit라트’가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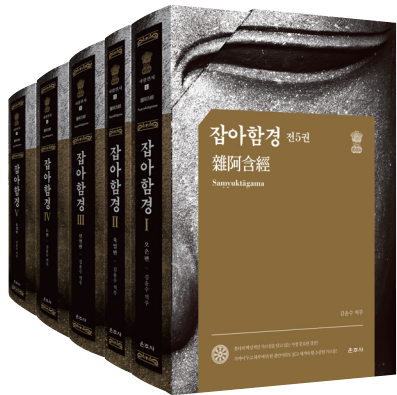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한산 김운수 역주 『아함전서』 1~16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